



# 화순서 대학배구 지존 가린다

**‘하니움센터’ 개관 기념 전국추계배구대회  
23~29일 조선대·한양대 등 15개팀 열전**

화순에서 대학배구의 최강을 가린다. 2009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가 23일부터 7일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화순군·화순군배구협회·전남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조선대·인하대·한양대 등 총 15개팀 500여명이 참가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개관 기념 첫 전국규모 대회로 지역민들에게 모처럼 쾌거 넘치는 대학배구의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참가팀은 남자대학 1부의 경우 인하대·조선대·경기대·홍익대(이상 A조), 한양대·경희대·성균관대·명지대(이상 B조) 등 명실상부한 대학 정상급 8개팀이다. 남자대학 2부는 건동대·목포대·부산대·충남대 4개팀이다. 그리고 여자대학부는 목포과학대·우석

대·건동대 3개팀이 참가한다. 남대부 1부 경기는 조별리그를 통해 상위 1·2위팀을 선별하고, 이들 4개팀이 28일 준결승, 29일 대망의 결승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목포과학대와 건동대의 여대부 경기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조별리그 21경기를 치른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대회 첫날 남대부 1부 조선대는 경기대와, 남대부 2부 목포대는 건동대와 각각 경기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는 배구대회의 경우 3개임, 배드민턴 경기는 14개임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희망을 달리는 ‘두바퀴의 터치다운’

21일 순천시 청암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혼성 휠체어 럭비 오픈경기에서 광주의 최명환(가운데)과 경기 복지숙이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상열 코치 고발... 김호철 감독 해임

**배구협, 국가대표팀 폭력사건 중징계**

대표팀 폭행 사건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배구협회가 대한체육회(KOC)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남자대표팀 사령탑을 경질했다. 배구협회는 21일 강동구 성내동 협회 사무실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호철(54) 감독을 해임하고 후임 감독에 차상현(35) 대표팀 트레이너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했다.

차 감독대행은 조만간 트레이너 1명을 지명하고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추스른 뒤 24일 제15회 아시아선수권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로 떠난다. 앞서 KOC는 이날 오전 태릉선수촌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박철우(24·현대캐피탈)를 때린 대표팀 이상열(44) 코치를 선수촌장 명의로 담당서인 노년경찰

서에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협회에 김호철 감독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김의진 협회 홍보이사는 “김 감독이 ‘데리고 있던 이 코치가 형사고발을 당한 마당에 감독인 내가 선수단을 이끌고 대회에 갈만한 처지가 못된다. 사의를 수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외부에서 새 감독을 선임할 시간이 없어 차상현 트레이너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독은 박철우가 지난 18일 저녁 이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다음날 협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상무에서 코치로 활약 중인 차상현 대표팀 감독대행은 사령탑을 맡은 적이 없고 이번 대회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케이·파월·펠릭스·지터·이신바예바... 세계육상 ★들 25일 대구 총출동

트랙과 필드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육상의 별들이 25일 대구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는다. 남자 육상 100m 세계랭킹 2.3위인 타이슨 게이(미국)와 아사파 과월(자메이카 사진), 여자 200m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3연패한 엘리스 펠릭스와 여자 100m에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낸 카멜리아 지터(이상 미국),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 엘레나 이신바예바와 여자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꾸준히 정상권을 지키고 있는 타티아나 레베데바(이상 러시아)까지. 작년 베이징올림픽과 지난해 끝난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 세계 육상팬을 흥분

의 도가니로 몰았던 슈퍼스타들이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기량을 겨룬다. 출전을 확정했다가 향수병으로 집에 돌아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까지 왔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라인업’이라고 대구육상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자랑한다. 외국에서 오는 수준급 선수만 90여명으로 한국 대표 45명 등 임원까지 합쳐 30개국에서 150여명이 참가해 남녀 트랙과 필드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선수단 규모는 가장 적지만 선수의 질로는 역대 으뜸이다. 100m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스틴 게



이틀린(미국)과 지금은 여자 장거리 여왕으로 입지를 굳힌 티루네시 디바바(에티오피아·이상 2005년), 남자 110m 허들의 ‘황색 탄환’ 류시양(중국·2006~2007년) 등이 대구를 찾기는 했으나 별들이 무더기로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20일 끝난 중국 상하이 그랑프리 대회를 마치고 속속 대구로 이동한다. 상하이 대회 100m에서 9초85를 찍은 과월과 지터가 가장 빠른 21일 입국했고 4년 연속 달구벌을 밟는 이신바예바는 상하이에서 23일 출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대구에 온다. /연합뉴스

## 역시 호날두

**프리메라리가 3R 또 2골... 득점 단독선두**

‘특급 원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레알 마드리드)가 또 두 골을 몰아치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호날두는 21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세레즈와 2009-2010 시즌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분 선제골과 후반 30분 추가 골을 넣어 팀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라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호날두는 후반에는 에스테반 그라네로의 크로스를 상대 문전에서 헤딩슛으로 연결해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호날두의 두 경기 연속 2골.

호날두는 지난 16일 스위스 취리히 레치그루트에서 열린 FC 취리히(스위스)와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도 혼자 두 골을 터뜨렸다.

시즌 초반부터 막강 화력을 뽐낸 호날두는 프리메라리가만 치면 3라운드까지 4골을 넣어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21일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맨시티와의 경기. 맨유 박지성이 상대 웨인 브리지의 킥을 몸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 김대영-정성안조 ‘금빛 물살’

**요트협회장배 470급 우승**

김대영-정성안(이상 여수시청)이 ‘금빛 물살’을 갈랐다. 김대영-정성안은 21일 전북 부안군 격포요트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요트협회장배 겸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남자 470급에서 벌점 13점을 기

록, 윤철-김형태(이상 보령시청·벌점 22점)를 앞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레이저급에선 하지민(한국해양대)이 8점으로 안광석(강릉시청·벌점 24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광주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최종(4차) 선발전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충남 보령요트장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2일(화)  
▲2009 일본 프로야구(주니치 : 요미우리)(13 : 50·SBS스포츠)  
▲2009 전국장애인체육대회(14 : 00·KBS2)  
▲2009 프로야구(롯데 : 히어로즈)(18 : 15·SBS스포츠·MBC ESPN) <삼성 : SK>(18 : 20·KBS n스포츠·Xports)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한민국 : 중국)(22 : 00·SBS스포츠)

구서동점기시 | 새동점기시공부동 | 새동점기시공부동 | 새동점기시공부동

# 두번 슬프게 하지 앙갚습니다.

프리드

구분	구분	구분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1566-4499

인대중압상조